

후은행 감소-건강보험 수요 ↑... 보험수지 단기적 개선

보험연구, 코로나 영향 보고서

“자보·건보손해율 일시적 개선 예상”
사스 이후 건보료 수입 70% 급증

〈역대 전염성 질병 현황 비교(2020년 2월 25일 18시 기준)〉 (단위: %)

구분	SARS ¹⁾	신종인플루엔자 A (H1N1) ²⁾	MERS ³⁾	코로나19 ⁴⁾
치사율	9.60%	1%	34.40%	3.40%
국제감염자	8,439명	알 수 없음	2,494명	80,239명 (진행 중)
국제사망자	812명	151,700~575,400명	858명	2,700명(진행 중)
국내감염자	3명	763,759명	186명	977명(진행 중)
국내사망자	0명	270명	39명	10명

1) WHO(2003. 7. 4), 'Cumulative Number of Reported Probable Cases of SARS'
2) CDC(2019. 6. 6), '2009 H1N1 Pandemic-Summary of Progress since 2009' 질병관리본부(2010. 9. 24), '신종인플루엔자 판데믹 A/H1N12009 감시 현황 분석'
3) WHO(2019. 11), 'MERS Situation Update'
4) WHO(2020. 2. 25),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ituation Report 36' 질병관리본부(2020. 2. 26. 16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발생동향」

않을 경우 손해율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수요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료 수입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규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사스 유행 이후 중국 건강 보험료 수입은 340억위안을 기록해 전년 대비 70% 급증했다. 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3011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보험 영업 및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중단으로 인한 글로벌 기업들의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계약을 기피해 보험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브리핑이나 세미나를 통한 단체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며 "전 세계적으로 2700명이 사망하고 인명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기업들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지점 폐쇄 또는 공장 가동 중단 등 사업 중단으로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스타벅스는 주요 매출 국가인 중국의 과반수인 약 2000개 지점 폐쇄로 영업이익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스바겐, 도요타, 포드, 현대자동차, 닛산 등은 중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재가동 시점을 연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분 기업보험은 전염성

질병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회사와 독일의 뮌헨재보험사가 전염성 질병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했지만 판매율은 저조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전염성 질병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염성 질병 위험은 세계 경제포럼(WEF) 뽑은 상위 10대 주요 위험 중 하나"라며 "보험회사들에게 운영상 위험과 손실 예방을 위해 전염성 질병 대비, 위험 관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응 방안으로는 사업 연속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자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며 "또 상품 구성의 변화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재보험 및 산업손실보증(ILW, Industry Loss Warranties)을 통해 위험을 이전하는 방안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신한카드, 코로나19 지원 中 小 企 專 용 관 오픈

소상공인 상품 판매 활성화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30% 인하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대응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신한카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 심리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는 자사 소핑몰인 '올댓쇼핑'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전용관을 오픈한다.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온라인에 취약한 만큼 이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한 것. 이는 '아마존'의 중소기업상생 프로젝트인 '스토어프론트(Storefronts)'를 벤치마킹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관은 6일 개관된다. 신한카드는 파격적인 할인, 마

이신한포인트 적립 등 프로모션을 통해 소상공인 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품 홍보와 판매는 물론,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홍보 동영상 등을 통한 기업 소개도 진행된다.

신한카드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 중인 '신한Day(신한데이)' 행사를 통해서도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많이 입점

해 있는 11번가에서 11% 할인 쿠폰, 위메프에서 카테고리별로 최대 12%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신한카드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30% 인하하고 2~3개월 무이자할부 실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마케팅 지원 등의 코로나19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활용해 이번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 충격이 있는 분야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이 전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신한카드를 포함한 신한금융그룹은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NH농협銀 “越 송금시 수취인 집앞까지 배달”

웨스턴유니온 취급 은행 중 최초
별도 수수료 없이 주소지로 배달



NH농협은행은 베트남으로 웨스턴유니온 현지통화 송금 이용시 수취인의 주소지로 베트남동(VND)을 직접 배달해주는 '베트남 홈딜리버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웨스턴유니온 취급 은행 중 최초다.

고객은 창구에서 베트남으로 웨스턴유니온 현지통화 송금시 가맹점 방문 수령 또는 홈딜리버리 수령 중 선택할 수 있다. 홈딜리버리 서비스를 선택하면 베트남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가맹점을 방문하지 않고, 송금액을 별도의 수수료 없이 주소지로 배달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해외송금 고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 송금

고객이 특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영업점,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세금대납 재테크?... 신용카드 사기 유의

금감원 Q&A

Q. 지인에게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해주면 원금은 물론 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재테크 방법을 소개받았습니다. 카드 결제는 은행 ATM에 있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구청에서 직접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런 세금대납을 해줘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타인의 세금을 몇 차례 대납한 뒤 몇 달 동안 대납금액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매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타인의 세금을 추가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를 이용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회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타인'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 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줄 필요가 있으시면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분실·도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하면 부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회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을 카드사가 보상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김희주 기자

소상공인에 손세정제 등 6만여개 나눔



전국 영업점 인근 자영업자에 나눔
'꽃 드림 행사'·물품 조기 구매 등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손세정제와 살균소독제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총 지원량은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약 6만4000개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는 약 9000개를 배부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 전국 영업점을 통해 영업점 인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배부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국 영업점 모두 지역경제의 일원"이라며 "지역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상생하는 취지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은 '꽃 드림(Dream) 행사'와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졸업·입학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 화원을 돕기 위해 화훼농가·화원에서 꽃 등을 구입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영업점을 통해 고객에게 증정한다.

기업은행에서 사용하는 고객용 사은품, 사무용품 등의 구매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2분기 이후 집행 예정인 구매 예산을 3월부터 조기 집행한다. 고객용 사은품은 소상공인을 통해 판매 중인 중소기업 제품만 구입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윤종원 행장이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나아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